

노인의 건강행위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손 화 희 (송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전임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모형을 기본으로 노인들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체계변인들을 분류하고, 노인의 개인특성변인과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지, 사회활동 참여가 포함된 미시체계, 그리고 노인의 이미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포함된 거시체계 환경이 노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련 체계변인들이 어떻게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변인이 되는지 밝히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54명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12월 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서울 강서 지역과 강남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이차로 연구자와 훈련받은 면접조사원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거하여 면접자가 질문한 후 응답자의 대답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구조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일차로 노인의 건강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노인의 건강행위에 영향력 있는 관련체계변인을 가리기 위해 개인특성변인, 미시체계, 거시체계의 변인들로 묶어서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생태학적 접근에서 노인의 건강행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개인특성변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내적 통제가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내적 통제의 신념은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 받게 되는데 이것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생태학적 접근에서 보면 개인특성변인 다음으로 노인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생활환경적 요소는 미시체계 변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원, 친구, 이웃의 친밀한 관계형태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노인의 건강행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행위에 긍정적인 것

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은 사회활동의 재참여로 신체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되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탈피할 수 있어 건강행위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노인에게 지각된 노인의 이미지와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집단과 비교해 노인의 건강행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가 노인을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노인은 부정적 낙인을 수용하게 되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능력이 그 만큼 저하된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체계의 구성요인들과의 관계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에만 큰 비중을 두던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의 전체적 관점에서 노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